

“업의 경계 뛰어넘고 신뢰로 위기 극복... 오뚝이 신한!”

〈業〉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연임 확정
고객 자산관리 중심... 평가체제 개편
“경영 효율성·생산성 한층 높일 것”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6일 연임을 확정지었다. 1기 체제에서 ‘리딩뱅크’ 자리를 탈환한 만큼 2기 체제에서는 ‘일류(一流) 신한’으로의 도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제19기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회장으로 조 회장을 선임했다.

앞서 신한지주 지분 9% 안팎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조 회장 연임 안건에 반대 의견을 표했지만 이변은 없었다. 제일교보 주주 등 우호지분이 워낙 탄탄해 조 회장 연임을 포함해 모든 안건이 무난히 주총을 통과했다. 올해 이사회 의장으로는 박철 사외이사(전 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국은행 부총재)가 선임됐다.

조 회장은 “새로운 3년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신화에 거는 큰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한의 리더로서 시장이 인정하고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류신한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것

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2기 체제에서 가장 당면한 과제는 신뢰회복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부터 금융권 전체적으로 투자상품 판매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신한금융 또한 소중한 자산을 맡겨준 고객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사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상품 사태를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 고객과 사회로부터 일류신한의 이름에 걸맞는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런 약속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상품판매에서 고객 자산관리 중심으로 성과평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고객의 실질적인 가치 증대에 초점을 맞춰 영업을 추진하도록 독려했다”고 강조했다.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업의 경계를 뛰어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한층 높일 것”이라며 “신한을 중심으로 최첨단 기술과 폭넓은 지식, 뛰어난 인재들이 융화될 수 있도록 민·관·학 등 업종과 분야를 초월한 폭넓은 개

방성과 유연함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해 기여하는 것이 리딩 금융그룹으로서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역할”이라며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소외된 이웃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따뜻한 금융의 온기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신한은 언제나 오뚝이처럼 일어나는 강한 회복탄력성을 바탕으로 역경을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 왔다”며 “조직, 상품·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등 그룹의 모든 것을 원점에서 점검해 글로벌 일류 금융사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손병환 신임 NH농협은행장 취임

“디지털 휴먼뱅크 만들 것”

고객 지원 현황 점검으로 업무 시작
고객 우선, 미래 준비, 전문성 제고

손병환 신임 NH농협은행장이 26일 취임식 없이 코로나19 관련 지원 현황을 챙기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NH농협은행은 이날 손 행장이 제5대 농협은행장으로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손 행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별도의 취임식 없이 코로나19로 힘든 농업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대고객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손 행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발송한 취임인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 지원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농협은행에 주어진 숙명”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경제가 다시 정상화 될 때까지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비울 때 우산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행장은 고객, 미래, 전문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기본으로 ‘고객 우선, 미래 준비, 전문성 제고’라는 경



손병환 NH농협은행장

영상침을 제시했으며, 농협은행을 새로운 디지털 휴먼뱅크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손 행장은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지켜가야 할 약속으로 ▲농협 본연의 가치 구현 ▲고객 보호와 가치 제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초격차 디지털 뱅크 구현 ▲글로벌 사업의 질적 성장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전문성 강화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손 행장은 “직원들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경청하고 옆에 서서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디지털 기술력으로 신용리스크 측정

기업여신 자동심사 지원시스템

KB국민은행은 디지털 심사 플랫폼인 기업여신 자동심사 지원시스템(Bics)을 오픈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여신 자동심사 지원시스템은 기업여신 관련 산업 및 업황 정보와 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심사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KB국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여신 심사 노하우와 최신의 분석기법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기술력이 반영돼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도록 설계됐다.

기업여신 자동심사 지원시스템에서는 신용리스크 측정의 정교화를 위해 기업의 신용등급 외에도 대출기간, 담보 및 부실패턴의 보유 여부와 차입금 규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이번 기업여신 자동심사 지원시스템의 도입으로 정보 수집 및 분석 시간을 단축시켜 신속하고 일관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직원의 심사 역량을 집중해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과 자산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안상미 기자

KB금융그룹 | 국민은행 | 금융파트너

KB증권, 원화만으로 가능한 해외주식을 열다

GLOBAL ONE MARKET

불편했던 해외주식을 국내주식처럼 쉽고 편하게!
원화 거래로 더 편해진 해외주식,
지금 글로벌 원마켓에서 만나세요.

**원화 거래로
편리하게!**

**당일 거래로
바로바로!**

**완전 수수료
평생 무료!**

[글로벌 원마켓 서비스 신청 시]
*일부 통화 한정
*국민은행 실시간 매매기준율 환율 적용 (외환시장 마감시 익일 환율 적용)

KB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0260호(2019년1월22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글로벌원마켓] *미국 주식수수료 온라인기준 0.25% (메도시 0.0013%, 제비용 별도) 일률 적용합니다.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도해지시 환전수수료 발생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국가: 미국, 홍콩, 중국, 일본